

# 기록이 만든 기적

---

교사의 하루, 옵시디언이 바꾼 1년

Junki

2024

- 기록이 만든 기적
  - 교사의 하루, 옵시디언이 바꾼 1년
  - 목차
- 프롤로그: 3월의 혼돈
- 1부. 화장실빌런의 비밀
  - 패턴의 발견
  - 기록이 바꾼 질문
  - 작은 변화, 큰 성장
- 2부. 공격적인 아이의 진짜 이유
  - 또 다른 패턴
  - 맥락을 찾아서
  - 달라진 상담

- 3부. 조용한 아이를 발견하기까지
  - 그래프 뷰의 고립된 점
  - 의식적 관찰의 시작
  - 보이지 않던 리더십
- 4부. 기록이 나를 지켜준 날
  - 민원 전화
  - 3단계 팩트 전환
  - 기록은 방패다
- 에필로그: 12월의 기적
  - 기록이 바꾼 것들
  - 마지막 한 마디
- 부록: 옵시디언 기록법 요약
  - 1. 데일리 노트 (매일 3분)
  - 2. 링크 걸기 (핵심 습관)
  - 3. 백링크로 패턴 찾기

◦ 4. 민원 대응 3단계

## 기록이 만든 기적

---

교사의 하루, 옵시디언이 바꾼 1년

**Junki** 지음

기억을 잊다, 교실을 읽다 교사를 위한 옵시디언 완전 가이드  
시리즈

### 목차

- 프롤로그: 3월의 혼돈
- 1부. 화장실빌런의 비밀
  - 패턴의 발견
  - 기록이 바꾼 질문
  - 작은 변화, 큰 성장

- **2부. 공격적인 아이의 진짜 이유**

- 또 다른 패턴
- 맥락을 찾아서
- 달라진 상담

- **3부. 조용한 아이를 발견하기까지**

- 그래프 뷰의 고립된 점
- 의식적 관찰의 시작
- 보이지 않던 리더십

- **4부. 기록이 나를 지켜준 날**

- 민원 전화
- 3단계 팩트 전환
- 기록은 방패다

- **에필로그: 12월의 기적**

- **부록: 옴시디언 기록법 요약**

---

"기억에 의존하는 교사는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기록을 소유한 교사는 매년 조금씩 성장한다."



## 프롤로그: 3월의 혼돈

---

3월 14일 목요일, 점심시간이 끝나기 5분 전이었다.

“선생님! 도현이랑 승민이가 싸워요!”

복도로 뛰어나갔다. 두 아이가 서로 노려보고 있었다.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겨우 말리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점심을 한 숟가락도 못 먹은 상태였다.

그날 저녁, 나는 옵시디언을 열고 이렇게 적었다.

점심시간: 🚧 [[강도현]]과 [[류승민]] 복도에서 다툼. 어깨 부딪힘 시비.

그때는 몰랐다. 이 한 줄이 6개월 뒤, 한 아이의 인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줄은.

# 1부. 화장실빌런의 비밀

---

## 패턴의 발견

김민준이는 우리 반의 '화장실빌런'이었다.

수업만 시작하면 손을 번쩍 듈다. "선생님, 화장실 가도 돼요?" 처음엔 웃어넘겼다. 아이들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상했다. 매주 같은 시간에만 배가 아프다.

3월 7일, 목요일 2교시 영어 시간.

[[김민준]] 수업 시작 5분 만에 화장실 간다고 나감.  
15분 소요.

3월 14일, 목요일 2교시 영어 시간.

[[김민준]] 또 화장실. 수업 시작 5분 만에. 저번 주랑 똑같다.

3월 21일, 목요일 2교시 영어 시간.

[[김민준]] 배 아프다며 보건실 감.

옵시디언에서 [[김민준]]을 클릭했다. 백링크에 3주간의 기록이 쪽 나열되어 있었다. 그제야 보였다.

날짜	요일	교시	과목
3/7	목	2교시	영어
3/14	목	2교시	영어
3/21	목	2교시	영어

매주 목요일 **2교시** 영어 시간에만 배가 아프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었다. 회피였다.

## 기록이 바꾼 질문

기록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민준아, 왜 자꾸 화장실 가니? 수업 빠지려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기록이 있었기에 이렇게 물을 수 있었다.

"민준아, 혹시 영어 시간이 힘드니?"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처음으로 '읽힌다'는 표정이었다.

"선생님... 듣기평가만 나오면 머리가 하얘져요."

영어 듣기평가에 대한 불안. 학원에서도 듣기 때문에 스트레스. "어차피 전 못해요"라는 말을 반복하던 아이. 화장실은 도피처였던 것이다.

## 작은 변화, 큰 성장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다. 듣기 스크립트를 미리 주는 것.

“민준아, 오늘 듣기평가에 이 내용 나올 거야. 미리 한 번 읽어봐.”

5월 9일, 민준이가 쉬는 시간에 달려왔다.

“선생님, 오늘 안 무서웠어요!”

11월, 기말고사 후.

“쌤, 저 듣기 75점 나왔어요! 제 최고 기록이에요!”

감으로 때리는 훈계가 아니라, 데이터로 설득하는 상담. 그 차이는 한 줄의 기록에서 시작되었다.

## 2부. 공격적인 아이의 진짜 이유

---

### 또 다른 패턴

강도현이는 '문제아'였다. 적어도 3월의 나에게는 그랬다.

- 3월 7일, 체육 시간 축구 중 과격한 플레이.
- 3월 14일, 점심시간 복도에서 류승민과 다툼.
- 4월 2일, 체육 시간 욕설.

[[강도현]] 백링크를 열 때마다 빨간 깃발이 펄럭였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그런데 기록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모든 사건이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직후에 발생했다.

- 축구 중 부딪힘 → 과격한 반응
- 복도에서 어깨빵 → 다툼
- 체육 시간 태클 → 욕설

## 맥락을 찾아서

3월 20일, 도현이를 조용히 불렀다.

“도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처음엔 경계했다. 훈날 줄 알았나 보다. 그런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갔다.

“선생님... 저희 집에서 아빠가 자주 소리 질러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도현이는 ‘공격적인 아이’가 아니었다. 방어적으로 먼저 공격하는 습관이 생긴 아이였다. 가정에서 큰 소리에 시달리다 보니, 갑작스러운 접촉이나 큰 소리에 과잉 반응하게 된 것이다.

나는 옵시디언에 이렇게 적었다.

[[강도현]] - 가정환경 파악 - 부모님 갈등, 아버지의  
큰 소리 - 갑작스러운 접촉 시 방어적 반응 - “공격적”  
이 아니라 “방어적 선제공격” 패턴 - 접근법: “공격받  
는 느낌이 들었어?” 식으로

## 달라진 상담

다음에 도현이가 친구와 다퉈을 때, 나는 다르게 말했다.

맥락을 모를 때:

"도현아, 왜 자꾸 친구들이랑 싸우니? 다음부터 참아."

맥락을 알 때:

"도현아, 승민이가 어깨 부딪혔을 때 화가 많이 났구나. 혹시 그 순간, 집에서 느끼는 것처럼 '공격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

도현이가 처음으로 울었다. "선생님이 저를 아시네요."

5월 15일, 스승의 날. 도현이가 편지를 건넸다.

"쌤, 사실 저도 제 성격 고치고 싶어요."

그 한 줄이 1년 중 가장 값진 문장이었다.

## 3부. 조용한 아이를 발견하기까지

---

### 그래프 뷰의 고립된 점

9월 어느 날, 옵시디언의 그래프 뷰를 열었다. 학생들의 이름이 점으로 표시되고, 기록이 많을수록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 김민준 - 화장실빌런, 영어회피, 자기효능감...
- 강도현 - 교우관계, 가정환경, 분노조절...

그런데 구석에 아무 선도 연결되지 않은 점 하나가 있었다.

정수아.

1학기 동안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은 아이. 조용하고 성실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내 레이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문제아는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모범생은 잊혀진다.”

그 사실이 부끄러웠다.

## 의식적 관찰의 시작

9월 12일, 쉬는 시간에 수아에게 다가갔다.

“수아야,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있어?”

처음엔 당황했다. 선생님이 왜 갑자기 말을 걸지? 하는 표정. 그런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 웹툰 좋아해요. 〈재혼황후〉 요.”

의외로 말이 많은 아이였다. 그냥 기회가 없었을 뿐.

그날부터 나는 수아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했다.

- 9월 12일: 쉬는 시간 대화. 웹툰 좋아함. 의외로 말 많음.
- 9월 18일: 발표 시간, 친구들 경청하도록 분위기 잡아줌.
- 9월 25일: 학급회의 진행, 수학여행 조 편성 같 등 중재.
- 10월 15일: 점심시간 급식 질서 유지에 솔선수범.

- 11월 5일: 모둠활동 조장 역할, 전원 참여 유도.

## 보이지 않던 리더십

수아는 조용하지만 영향력 있는 리더였다.

학급회의에서 아이들이 수학여행 조 편성으로 싸울 때, 수아가 조용히 정리했다. “우리 일단 각자 희망 조 적고, 겹치는 사람끼리 얘기해보자.” 회의가 10분 만에 끝났다.

모둠활동에서 무임승차하는 아이가 있을 때, 수아가 역할을 나눠줬다. “너는 이거, 너는 저거.” 모두가 참여했다.

기록하지 않았다면, **12월 생기부는** 이랬을 것이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임.”

기록이 있었기에, 이렇게 쓸 수 있었다:

"2학기 학급 반장으로서 조용하지만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함. 학급회의 진행 시 갈등 상황을 조정하는 능력을 보였으며, 모둠활동에서 조장으로서 전원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책임감이 돋보임."

## 4부. 기록이 나를 지켜준 날

---

### 민원 전화

6월 15일, 퇴근 직전에 전화가 왔다.

“선생님, 민준이 아버지입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민준이가 울면서 왔어요. 선생님이 자기만 미워한대요.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예전의 나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다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으로 들린다. 감정 대 감정의 싸움이 시작된다.

### 3단계 팩트 전환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 1단계: 감정 수용

"아버님, 민준이가 많이 속상했나 봐요."

#### 2단계: 확인 요청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 기록을 확인해 봄도 될까요?"

전화기를 어깨에 끼고 옵시디언을 열었다. Ctrl+Shift+F, 검색창에 '김민준'.

3월부터 6월까지의 기록이 쭉 나왔다.

#### 3단계: 팩트 제시

"기록을 보니, 3월 21일 수행평가 중에 시험 끝나고 가도록 안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보내드렸고요."

잠시 멈쳤다가 덧붙였다.

"사실 민준이가 매주 목요일 영어 시간에만 화장실을 가서 상담했더니, 듣기평가가 힘들었더라고요. 지금은 스크립트를 미리 주고 있고, 5월부터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아... 그런 거였군요. 민준이가 왜곡해서 말한 것 같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 기록은 방패다

11월, 정수아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선생님도 우리 수아한테 관심 없으시죠? 조용한 애들은 다 그렇잖아요."

나는 옵시디언을 열었다.

"어머니, 9월부터 기록을 말씀드릴게요. 9월 18일 발표 시간에 친구들 경청 분위기 조성, 9월 25일 학급회의 갈등 조정, 10월 15일 급식 질서 유지 솔선수범, 11월 5일 모둠활동 조장 역할..."

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기억은 왜곡되지만,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다.

민원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 손에는 방패가 있었으니까.

## 에필로그: 12월의 기적

---

12월, 생활기록부 마감 시즌.

예전의 나는 이맘때 머리를 쥐어뜯었다. “1번 강도현... 뭐 썼더라?” 결국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라는 복불 문장을 적었다.

올해는 달랐다.

검색창에 ‘강도현’ 입력. 1초.

3월의 다툼, 가정환경 파악, 4월의 상담, 5월의 편지, 9월의 변화...

1년간의 여정이 눈앞에 펼쳐졌다.

“초반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꾸준한 자기 성찰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함. 체육 활동 시 심판 역할

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책임감을 보였으며, 후배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성장이 돌보임.”

## 5분. 진심이 담긴 생기부 한 문단을 쓰는 데 걸린 시간.

---

### 기록이 바꾼 것들

학생	3월의 나	12월의 나
김민준	“화장실빌런”	“영어 불안을 극복한 아이”
강도현	“문제아”	“방어기제를 이해받은 아이”
정수아	“조용한 애”	“영향력 있는 리더”

달라진 건 아이들이 아니었다. 나의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바꿔준 건, 매일 3분씩 적은 한 줄의 기록이었다.

---

## 마지막 한 마디

"완벽하게 쓰려 하지 마세요. 엉망으로라도 일단 쓰세요."

그 한 줄들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됩니다.

기록하지 않은 경험은 경력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첫 번째 점을 찍어보세요.

# 부록: 옵시디언 기록법 요약

---

## 1. 데일리 노트 (매일 3분)

매일 자동으로 생성되는 오늘 날짜의 기록장입니다.

기본 양식:

```
# 2026-03-14 (목)
```

```
## 오늘 한 줄
```

- [[김민준]] 또 화장실. 목요일 2교시 패턴?
- [[강도현]] 점심시간 다툼. 개별 면담 필요.

```
## ORID 회고
```

- 사실: 무슨 일이 있었나?
- 감정: 어떤 기분이 들었나?
- 해석: 왜 그랬을까?
- 계획: 그래서 어떻게 할까?

## 2. 링크 걸기 (핵심 습관)

대괄호 두 개로 감싸면 링크가 됩니다.

- 학생 이름: [[김민준]], [[강도현]]
- 행동 키워드: [[화장실빌런]], [[교우관계]]
- 환경 키워드: [[월요병]], [[비오는날]]

## 3. 백링크로 패턴 찾기

[[김민준]] 클릭 → 모든 관련 기록이 한 곳에 모임

→ “목요일 2교시 영어 시간만 화장실” 패턴 발견

## 4. 민원 대응 3단계

1. 감정 수용: “많이 걱정되셨겠습니다.”
2. 확인 요청: “기록을 확인해 볼게요.”
3. 팩트 제시: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

이 에세이에 등장하는 인물, 사례, 장소, 시간 등은 모두 교육적 이해를 돋기 위해 구성된 가상의 내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

기록이 만든 기적

교사의 하루, 옵시디언이 바꾼 1년

저자: Junki

시리즈: 기억을 잊다, 교실을 읽다 - 교사를 위한 옵시디언  
완전 가이드

© 2024 Junki.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교  
육 목적의 인용은 출처를 밝히면 가능합니다.

문의: junki@example.com